

기술과 예술+놀이의 ‘미래 운동회’



ACC는 오는 6월 1일까지 복합전시1관에서 개관 10주년 기념 기술과 예술, 놀이가 결합된 '미래운동회'와 아카이브 전시를 진행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멘트에 참가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동작을 멈춘다. 참가자들은 손에 든 사물을 이용해 동작을 숨기는 포즈를 취한다. AI가 움직이는 대상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탈락이다. 다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끝나기 직전, 참가자들은 앞으로 이동한다. 한두 명이 탈락을 하고 다시 게임은 진행된다. 무서히 AI의 검사를 피한 참가자들은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

'땅따먹기'="땅따먹기"가 시작되자 헬멧을 착용한 참가자들은 정해진 구역에 부지런히 옮겨 다닌다. 머리 위에서 비추는 디지털 센서에 따라 면적이 체크된다. 그러나 다른 참가자가 이편이 점령했던 땅을 지나면 그 땅은 상실하게 된다. 센서에 따라 땅의 색깔이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등으로 표시되는데 부지런히 지능적으로 움직일수록 땅의 면적은 넓어진다.

최근 기술과 예술, 놀이가 결합한 '미래 운동회'가 열렸다. 지난 30일 개막해 오는 6월 1일까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ACC) 복합1관에서 진행되는 '미래 운동회'. 기자도 직접 운동회에 참가해 과학기술이 어떻게 운동회의 형태와 구성을 바꿀었는지 직접 체험을 했다. 디지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이번 운동회는 고전적이면서도 친숙한 운동회가 아닌 말 그대로 미래형에 방점이 놓여 있다. 디지털 기술과 현대예술을 접목해 창의적으로 구현한 점이 기존의 운동회와 다르다. 다시 말해 아날로그 방식의 전통적 운동회가 아닌 디지털 문해력과 예술적 창의성을 겸비한 새로운 개념의 '놀이'다. 그렇다고 마냥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기성세대들에게도 익숙한 종목들도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하면 의외로 빨리 적응할 수 있다. 단 하나, 기술이 결합한 운동회답게 참가자의 창의력은 필수다.

ACC '미래 운동회' 체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아카이브전 등 다음달 1일까지 복합1관서 체험·전시
디지털 문해력·예술적 창의력 필요

장애·비장애인 운동회 등 새로운 놀이 경험 제공
세대간 통합 의미도

앞서 언급한 종목 외에도 '따르릉 전화반'으로도 흥미롭다. 헬멧을 쓴 참가자들은 수시로 귀에서 울리는 "따르릉" 소리를 들으며 일정한 구역 내를 이동한다. 이때 디지털 센서에 따라 하얀 그림자가 떠다니는데, 참가자들은 소리에 촉각을 세운다. 그림자를 밟으면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청각 능력을 활용해 소리를 많이 찾아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운동회는 체험형 전시와 상시 관람 가능한 전시로 펼쳐진다. 체험은 앞서 언급한 'AI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디지털 땅따먹기', '따르릉 전화반' 외에도 '굴러라 모여라', '불나방 대소동', '다함께 춤을 추다가', '스포츠 타임머신', '그림자 축구' 등이다. 일반 관람은 운동회 역사를 비롯해 예술과 스포츠 관계, 프로그램 개발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한 아카이브 전시가 있다. 이번 전시 콘텐츠는 지난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일환으로 일본의 디지털아트 기관인 아마구치정보예술센터와의 협력을 토대로 공동으로 개발됐다.



스크린에 비치는 동물에 따라 달리는 '스포츠 타임머신'.

미래 운동회는 오는 16일 장애

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특별운동회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커톤(공동 창작대회)과 운동회는 9-10일, 23-24일 펼쳐진다. 참가자는 ACC 누리집 통해 선착순 모집하며 행사별 참여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 한편 김상욱 전당장은 "ACC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술과 예술, 놀이가 어우러진 미래 운동회를 마련했다"며 "어른들은 지나온 과거의 추억을, 아이들은 어른과 함께하는 새로운 놀이의 감수성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세대간 통합의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 70회 호남예술제 입상자·관악

◇심사위원> 유영대(충남대 교수) 김동수(성신여대 교수) 이철웅(연세대 교수) 이현주(군산대 교수) 주민혁(광주시립교향악단 수석)	◇마림바 초등부 5.6학년 ▲은상 1 전서린(여수서초6)	▲은상 2 조혜원(전남예술고3) ▲동상 1 윤다혜(광주예술고3)
◇플루트 초등부 1.2학년 ▲은상 1 서이현(광주송원초2) ▲동상 2 이서연(광주삼육초2) ◇플루트 초등부 3.4학년 ▲은상 6 김도율(광주송원초4) ▲동상 2 이경환(광주삼육초4) ◇플루트 초등부 5.6학년 ▲최고상 6 민수연(유안초6) ▲금상 1 문아정(광주교대광주부설초6) ▲동상 2 나하윤(광주송원초5)	◇마림바 중등부 1.2학년 ▲은상 2 엄유림(여선중1) ▲동상 1 박서연(여수충덕중1)	◇트럼펫 고등부 3학년 ▲은상 2 안재형(별교고3) ▲동상 1 박명찬(장성하이텍고3)
◇오보에 초등부 5.6학년 ▲동상 2 김안지(불로초6)	◇트럼펫 중등부 1.2학년 ▲은상 1 박여원(산정중1)	◇클라리넷 고등부 1.2학년 ▲동상 1 김예은(문향고2) ◇클라리넷 고등부 3학년 ▲동상 1 유재현(광주동신고3)
◇클라리넷 초등부 5.6학년 ▲동상 3 정은를(광주교대광주부설초6)	◇플루트 중등부 1.2학년 ▲금상 1 우이든(광주예술중2) ▲동상 5 성하담(광주예술중2) ◇플루트 중등부 3학년 ▲은상 1 김연주(살레시오여자중3) ▲동상 3 양가은(삼계중3)	◇플루트 고등부 1.2학년 ▲금상 2 한지원(광주예술고1) ▲동상 5 김예서(한국창의예술고2) ◇플루트 고등부 3학년 ▲은상 3 조은파(전남예술고3) ▲동상 1 이민진(전남예술고3) 2 송민주(광주예술고3)
	◇튜바 고등부 3학년 ▲금상 1 최인호(여수충무고3)	
	◇오보에 고등부 1.2학년 ▲은상 1 김시훈(한국창의예술고2) ◇오보에 고등부 3학년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시산택시문학상’에 유금란·황주은 시인

제5회 시산택시문학상에 유금란·황주은 시인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각각 '여위에서', '베레게우스 농원'.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시산택시문학상은 시산택 회원으로 전년도 한 해 동안 문예지에 발표한 작품 중 1편을 응모한 이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회원들의 창작 욕구를 고취하고 단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에는 모두 100여 명의 시 100여 편이 응모됐다. 올해 심사는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오른 8명의 작품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기수상자 5명이 맡았다. 강재남 시인은 유금란 시인의 '여위에서'는 "몽골 여행에서 체험한 낯선 경험을 면밀하게 관찰해 삶의 감각을 밀도 높은 감정으로 그려낸 작품"이라며 "내세의 기원을 묻은 돌무더기' 앞에서 무사안녕을 위해 두 손 모은 기도가 모든 이의 '기도'로 화하며 독자로 하여금 순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힘이 있다"고 평했다. 이렇듯 시인은 황주은 시인의 '베레게우스 농원'은 "시대적 서사를 감각적인 언어운용으로 전개하고 있어 공감을 끌어내는 힘이 크다"며 "모든 실패가 씩어 거름이 된 날"을 호호하는 경작(인간사)을 위한 헌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했다.



유금란 시인



황주은 시인

한편 유금란 시인은 2008년 '조선문학' 수필 등단, 2021년 제간 '시산택' 시로 등단했으며 산문집 '시드니에 바람을 걸다', '바다 건너 당신' (공저)을 펴냈다. 제2회 동주해외신인상, 재외동포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황주은 시인은 2013년 '시사'로 등단했으며 시집 '불의 씨'를 펴냈다. 2021년 시와반시 제1회 다카시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열리는 시산택 전국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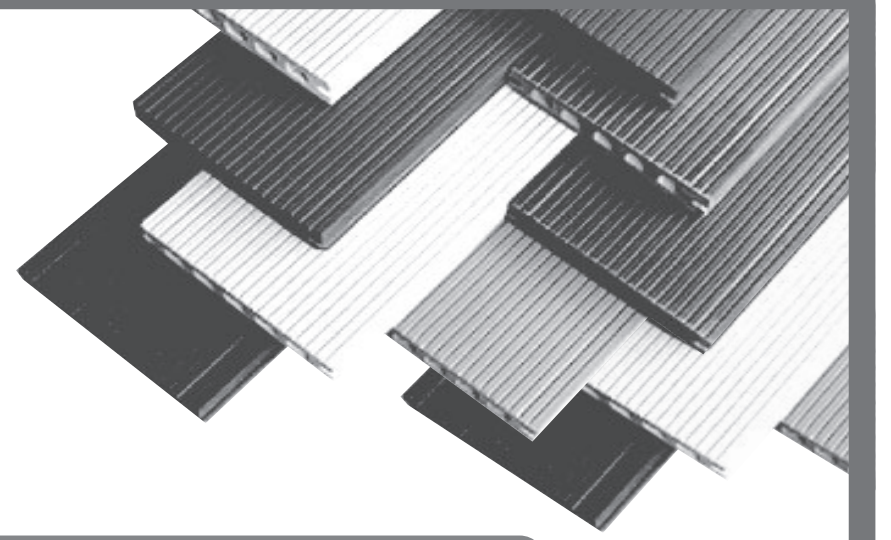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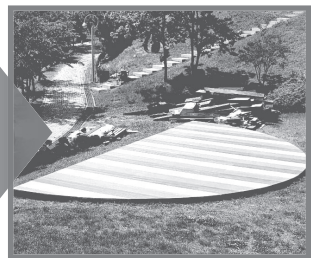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